

기독교인의 성장기 나눔교육경험과 종교성이 자원봉사 참여의도에 미치는 영향*

- 사회적책임성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

정 상 원

서울사이버대학교

〈요 약〉

본 연구의 목적은 기독교인의 성장기 나눔교육 경험과 종교성이 사회봉사 참여의도에 미치는 영향과 이러한 과정에서 사회적책임성의 매개효과를 규명하는 데 있다. 본 연구를 위해 2009년 서울·경기지역 개신교 교회에 소속되어 있는 교인들을 대상으로 설문을 실시하여 최종적으로 1,059명의 자료를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성장기에 받은 나눔교육 경험은 성인기 사회봉사 참여의도에 정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만 사회적책임성을 매개하여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종교성은 사회봉사 참여의도에 직접적으로 유의한 영향이 없으나 사회적책임성을 매개하여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결과는 특히 기독교인의 자원봉사 참여기제를 구조방정식 모형을 활용하여 실증연구하였으며 자원봉사 참여에 대한 규범주의 이론, 사회실천 이론 및 사회학습 이론을 검증했다는 데 그 의의가 있다. 본 연구의 결과를 토대로 종교를 갖는 시민의 자원봉사 참여 활성화에 대한 실천적 방안 및 추후 연구과제에 대하여 논의하였다.

핵심주제어: 자원봉사 참여의도, 나눔교육, 종교성, 사회적책임성

I. 서론

서구 사회는 복지국가의 위기와 자원부족으로, 한국 사회는 민간중심적 사회복지서비스 제공의 전통과 외원의 철수에 따라 복지공급의 주체를 다원화하자는 복지다원주의(welfare

* 본 연구는 2014년 서울사이버대학교 교내연구비 지원에 의해 수행되었습니다.

pluralism)가 강조되면서 특히 1990년대부터 시민의 자발적 나눔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어 왔다. 나눔은 종교적 목적을 위한 종교봉사와 헌금을 제외한 “인간이 직면한 문제 해결이나 삶의 질 개선에 초점을 맞춘 공익을 추구하는 자발적인 사적 행위”¹⁾를 의미한다. 시민의 자발적 나눔의 한 형태로서 자원봉사는 국가적 의미에서 사회문제 해결과 공공비용 절감, 민간자원 활성화 및 사회적 통합에 기여할 뿐 아니라 봉사에 참여하는 개인에게는 사회적 연결망과 사회적 기술의 증진을 제공하고, 도움을 받는 사람들에게 문제발생 시에 보다 즉각적인 도움을 줄 수 있으며 개인의 필요에 따라 개별화된 지원을 제공할 수 있는 등 다양한 사회적 유익을 창출하고 있다.

슈거만(Sugarman)은 인간 봉사 영역의 주체를 공공, 영리, 그리고 시민의 자발적인 자원봉사 활동을 포함하는 비영리 영역으로 분류하였다.²⁾ 비영리 영역은 민간의 자발적인 공익활동으로서 자원 영역(voluntary sector)이라고도 불리우며 이 중 종교를 가진 시민과 종교생활을 이끄는 종교기관들은 지역사회에서 시민사회를 구성하는 중요 요소로 여겨져 왔다. 무엇보다도 종교는 지역사회에 신체적 돌봄, 삶의 방향제시, 그리고 사회적 연결망을 통하여 나눔활동을 촉진하고 위험에 처한 지역사회 구성원들에게 사회안전망을 제공해 왔다.³⁾ 자원봉사와 관련한 사회과학적 연구의 주제는 어떻게 사람들이 자원봉사에 참여하게 되는가, 그리고 어떻게 자원봉사 활동을 증대시킬 것인가와 관련되어 왔으며 종교는 자원봉사 참여를 촉진시키는 주요 요인으로 다루어져왔다.

종교는 많은 문화권에서 사회적 연대를 이끄는 핵심적 역할을 담당하고 있으며 한국 사회에서 기독교는 전통종교인 유교나 불교에 비하여 시민참여를 양산하는 데 기여도가 높다는 평가를 받아왔다.⁴⁾ 초대교회에서 복음전도와 구제사업을 보다 효율적으로 전개하기 위하여 일곱 집사를 선택한 이래로 서구사회의 모든 자선활동은 교회에 뿌리를 두고 있으며, 한국사회에서도 기독교는 조선시대부터 선교 목적으로 내방한 기독교 선교단체와 외원 단체들을 통하여 다양한 사회복지 서비스를 제공했을 뿐 아니라 빈민, 고아, 장애인, 결핵 환자와 같은 소외계층에 대한 구호활동을 주도했다.⁵⁾ 기독교는 교세가 확장되기 시작했던 1970년대 이후로부터 자원봉사활동이 다소 둔화되었다는 비판도 있으나 기독교는 여전히 약자에 대한 돌봄이 교리의 핵심일 뿐 아니라 자비를 강조하는 가르침을 통하여 사

1) 조주희·강철희·박태근, 「민간나눔자원 총량 추계 연구」 『2014년 한국사회복지행정학회 춘계 학술대회 및 WORKSHOP』(한국사회복지행정학회, 2014), p.87. 재인용.

2) Sugaman, S., *Piaget's construction of the child's reality* (New York:Cambridge University Press, 1987), p. 225.

3) Smith, D. *Altruism, volunteers and voluntarism*, In *Voluntarism in the Eighties*, ed. (J Harman, Washington, DC: Univ. Press, 1982), p. 23-44.

4) Jeong, H. O. “How Do Religions Differ in Their Impact on Individuals” Social Capital? The Case of South Korea”, *Nonprofit and Voluntary Sector Quarterly* 39(1), 2010, pp. 142-160.

5) 김미숙, 「교회의 사회복지활동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 『한국보건사회연구』제20권 1호(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0), 32-63쪽.

회적 나눔활동을 장려하는 문화를 제공하고 교인들의 자원봉사참여를 활성화하고 있다.

본 연구는 특히 기독교 교회에 소속되어 종교활동을 하고 있는 교인들을 중심으로 그들의 자원봉사활동에 영향을 미치는 종교적 영향과 그들의 성장기 나눔에 대한 교육경험의 효과를 검증하고자 한다. 또한 기독교계에서도 교인들의 나눔에 대한 가치 함양과 참여활성화 및 봉사기회 확대에 노력을 기울여 왔으나 이러한 노력이 교인들의 실질적인 봉사활동 참여에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실증연구는 미진한 상황이다.

본 연구는 기독교인을 대상으로 종교를 가진 시민의 봉사참여에 대한 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서 성장기 나눔교육 경험과 종교성에 초점을 두고 이들 관계에서 사회적 책임성의 매개효과를 검증하고자 한다. 이를 통하여 종교를 가진 개인의 봉사활동 참여기제를 이해하는 지식기반을 마련하고 봉사 참여를 제고할 수 있는 개입방안을 모색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II. 이론적 배경

자원봉사 참여를 설명하는 이론으로서 자원봉사와 같은 친사회적 행동은 이타적 가치에 의하여 주도된다는 규범주의적(normativism) 접근이 있어왔으며 또 한편으로 자원봉사는 행위의 습관으로서 가치나 태도의 직접적인 영향 없이 과거의 경험에 근거한다는 사회실천적(social practice) 접근이 있어왔다. 규범주의 이론의 대표적인 학자인 뒤르켐(Durkheim)과 토크빌(Tocqueville)은 가치와 규범 및 태도가 개인의 행동을 설명한다고 보았다.⁶⁾ 규범주의적 접근은 자원봉사와 같은 친사회적 행동을 설명하는 데에 개인의 가치, 규범, 태도의 역할에 강조점을 둔다.⁷⁾ 이 때문에 자원봉사에 참여하게 되는 사회적 맥락과 구조 보다는 자원봉사가 사회적책임성과 윤리적 가치에 의하여 주도되는 속성을 가지고 있다고 보고 사회심리적 요인에 주목한다. 가치가 봉사참여를 실제로 동기화하는지, 아니면 봉사에 참여한 사람들이 자신의 봉사참여를 사후적으로 설명하거나 합리화하는 방법으로서 가치를 사용하는 것인지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다.⁸⁾ 일부 연구에서는 자원봉사활동에 참여하는 데 있어서 개인의 가치, 규범, 태도와 같은 요인에 의한 영향력은 미미하다는 연구결과를 보고하기도 하였다.⁹⁾ 그러나 타인을 돕는 것이 가치로 형성된 사

6) Durkheim, E. *Emile Durkheim on morality and society*. (University of Chicago Press, 1973)., De Tocqueville, A. *Democracy in america* (Vol. 10). (Regnery Publishing, 2003).

7) Janoski, T., Musick, M., & Wilson, J. (1998, September). "Being volunteered? The impact of social participation and pro-social attitudes on volunteering" *In Sociological Forum*, 13(3), 1998, pp. 495-519. p.497.

8) Dekker, P., & Halman, L. (2003). *The values of volunteering: Cross-cultural perspectives* (Springer Science & Business Media, 2003), pp. 4-5.

람들은 도움을 필요로 하는 상황에 보다 반응적으로 행동하게 된다는 데에 광범위한 공감대가 있으며 이타적 가치가 어떻게 이타적 행동을 동기화하는지, 그리고 그러한 이타적 가치는 어떻게 형성되는지는 연구의 주제로서 지속적으로 관심의 대상이 되어왔다.

사회실천적 접근에서는 과거에 반복적으로 했던 행동이 미래의 행동을 견인한다고 주장한다.¹⁰⁾ 야노스키(Janoski)와 그의 동료들은 중단연구를 통하여 청소년기의 봉사활동 경험이 이후의 성인기 봉사활동을 예측한다는 것을 밝히면서 반복적 경험이 아니라 한번의 자원봉사라도 일단 접하게 되면 이후에 다시 봉사활동에 참여하기가 용이하다고 하였다.¹¹⁾ 사회실천적 이론은 아동과 청소년에게 봉사활동을 경험하게 하면 성인기에도 봉사활동에 참여하기가 더욱 용이해진다고 본다. 따라서 비자발적으로라도 봉사활동을 하도록 봉사교육을 의무화하면 시민사회의 형성에 기여하게 될 것이라는 논리를 뒷받침한다고 할 수 있다. 한편, 인간은 유기체로서 갖는 기초적 반사반응을 제외한 대부분의 행동유형을 직접적인 경험이나 관찰을 통해 습득하므로 타인의 복지를 위하여 개입하는 행동은 부모나 교사와 같은 주요 학습자로부터 반복적으로 교육됨으로써 형성된다고 보는 사회학습이론도 자원봉사 참여를 설명하는 주요 이론으로 제시되고 있다.¹²⁾

본 연구에서는 자원봉사 참여기제를 설명하는 규범주의 이론과 사회실천 이론 및 사회학습 이론에 기반하여 종교를 가진 시민의 성인기 봉사참여를 예측하고자 하였으며 이를 위하여 성장기 나눔교육 경험과 개인의 종교성의 봉사의도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고, 사회적책임성의 가치형성이 매개효과를 갖는지 확인하고자 한다.

1. 성장기 나눔교육의 영향

자원봉사 참여에 영향을 미치는 가치는 다른 가치들이 그러하듯이 비공식적으로는 가족과 친구들의 영향 속에 형성되고, 공식적으로는 학교, 종교기관, 직장 등을 통하여 형성된다.¹³⁾ 우드노우(Wuthnow, 1995)는 타인에게 자신의 시간과 물질을 나누는 태도와 가치는 특히 가정에서 길러지며 가정에서 타인을 돌보는 윤리를 학습하게 된 사람들이 이후에 자

9) Smith, D. *Altruism, volunteers and voluntarism*. In *Voluntarism in the Eighties*, ed. (J Harman, Washington, DC: Univ. Press, 1982), p. 23-44.; Fischer, L. R., & Schaffer, K. B. *Older volunteers: A guide to research and practice*. (Sage Publications, Inc., 1993).; Midlarsky, E., & Kahana, E. *Altruism in later life*. (Sage Publications, Inc., 1994).

10) Ouellette, J. A., & Wood, W., "Habit and intention in everyday life: the multiple processes by which past behavior predicts future behavior" *Psychological bulletin*, 124(1), 1998, pp. 54-74.

11) Janoski et al., (1998). 앞의 글.

12) 이종은, 「나눔교육프로그램 개발 및 효과연구 : Concept Mapping을 활용한 모델개발」(연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9), 18-19쪽.

13) Janoski, Thomas, and John Wilson. "Pathways to voluntarism: Family socialization and status transmission models." *Social Forces* 74(1), 1995, pp. 271-292.

원봉사활동에 참여할 가능성이 높다고 하였다.¹⁴⁾ 플래너건(Flanagan)과 그의 동료들은 부모가 자녀들에게 자원봉사에 대한 사회적책임성과 공동체에서 도움의 호혜성, 그리고 사회 정의에 대한 인식을 심어주는 교육을 할 때 자녀의 봉사 동기가 형성된다고 보았다.¹⁵⁾

자원봉사동기에 대해 연구해 온 학자들은 부모가 봉사에 참여하는 경우 청소년 자녀들의 봉사 참여 가능성이 높아지는데 이 것은 부모가 자녀에게 봉사활동에 참여하는 것에 대하여 긍정적 사고를 하도록 가르친 결과라고 보았다.¹⁶⁾ 부모가 사려 깊고 이타적인 행동을 하면서 자녀들에게 그런 행동을 하도록 격려하고 칭찬한다면 자녀들에게 친사회적 행동이 강화된다는 것이다.¹⁷⁾ 기존의 연구들에서 부모의 나눔교육의 효과는 자녀에게 봉사의 중요성과 가치에 대한 인지적 교육의 효과 뿐 아니라 부모의 나눔행동을 관찰한 모델링의 효과의 중요성을 포함하고 있다. 우드노우는 자원봉사가 가정에서 부모의 가르침을 통해 문화적으로 전승되기 위해서는 부모가 자녀에게 자원봉사를 실천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았다. 부모의 자원봉사 실천이 자녀의 봉사활동에 영향을 미치는 데 대한 선행연구로는 피츠시몬즈(Fitzsimmons)의 연구¹⁸⁾가 있다. 피츠시몬즈는 조사 대상자의 아버지가 봉사활동을 했던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을 비교한 결과 아버지의 봉사활동 참여가 자녀의 봉사활동 참여에도 유의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보고하였는데 어머니의 봉사활동 참여는 유의한 영향이 없었다고 보고했다. 한편, 성장기에 부모로부터 받은 교육은 자녀의 성인기 자원봉사활동을 설명하는 직접적 효과는 미미하다는 주장도 있다.¹⁹⁾ 국내에서는 윤기종·최승희가 청소년 자원봉사활동의 지속요인을 연구하면서 부모의 영향을 검증한 결과, 부모의 과거의 봉사 참여 경험은 유의한 영향이 없고, 조사당시 부모가 자원봉사 참여를 하고 있는 경우, 즉 현재의 봉사활동 참여가 청소년 자녀의

14) Wuthnow, R. *Learning to care: Elementary kindness in an age of indifference*.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1995).

15) Flanagan, Constance A., and Lonnie R. Sherrod. "Youth political development: An introduction." *Journal of social issues* 54(3), 1998, pp. 447-456.

16) Rosenthal, S., Feiring, C., & Lewis, M. "Political volunteering from late adolescence to young adulthood" *Journal of social issues*, 54(3), 1998, p. 490; Segal, L. M., Four essays on the supply of volunteer labor and econometrics (Doctoral dissertation, Northwestern University, 1993), p. 105; Sundeen, R. A., & Raskoff, S. A. "Volunteering among teenagers in the United States" *Nonprofit and Voluntary Sector Quarterly*, 23(4), 1994, p. 392.

17) Amato, P. R., & Booth, A. *A generation at risk: Growing up in an era of family upheaval* (Harvard University Press: 79 Garden Street, Cambridge, MA 02138-1423, 1997), p. 17; Franz, Carol E., and David C. McClelland. "Lives of women and men active in the social protests of the 1960s: A longitudinal study."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66(1), 1994, p.196.; 장상근, 「자원봉사활동 결정요인에 관한 연구」(서울시립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5), 36쪽.

18) Fitzsimmons, V. R. (1986). Socialization and volunteer work: The role of parents and college volunteering. *Nonprofit and Voluntary Sector Quarterly*, 15(4), 57-66.

19) Rosenthal, S., Feiring, C., & Lewis, M. "Political volunteering from late adolescence to young adulthood" *Journal of social issues*, 54(3), 1998, 477-493.

자원봉사 지속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하였다.²⁰⁾

가정과 함께 자원봉사에 대한 태도를 결정하는 가장 영향력 있는 주체로서 학교를 들 수 있다. 가정에서 사회화된 돌봄의 가치가 학교나 종교조직, 자원봉사 기관과 같은 이차적 기관을 통하여 행동화된다고 보는 견해도 있으나 공교육 수혜가 유아기에 시작되는 오늘날에는 가정에서 받은 교육이 학교에서 받은 교육을 통해 자원봉사참여로 이어지는 순차적 영향력을 갖는 다기 보다는 동시적 영향을 갖는 것으로 보는 것이 적절할 것이다. 이종은은 초등학생을 위한 나눔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6개 학급의 학생들에게 적용한 결과, 교육 전에 비하여 교육 이후에 나눔에 대하여 인지적, 실천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음을 보고하였다.²¹⁾ 그러나 이처럼 국내에서 시행된 대부분의 자원봉사에 대한 교육 효과 연구는 주로 교육을 받은 직후에 발생한 교육효과에 관한 것이고²²⁾ 교육의 보다 장기적 효과에 관한 연구는 매우 드문데, 김옥·송미영의 연구에서 과거 교육경험이 자원봉사 참여기간과 강도에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결과가 있는 정도이다.²³⁾ 해외 연구 중에는 고등학교 시절에 나눔교육을 받은 사람들이 대학에 재학하는 동안 및 그 이후의 성인기에 자원봉사활동에 참여할 가능성이 더욱 높다는 연구결과가 있다.²⁴⁾

2. 종교기관 및 종교성의 영향

종교조직은 자원봉사를 동기화하고 사회화하는 세 번째 주체로서 개인의 나눔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본다.²⁵⁾ 대부분의 주요 종교들은 사회적 나눔의 가치를 지향하고 있는데, 특히 기독교는 교리적으로 자기 유익을 지양하고 타인을 섬기는 가치를 강조하고 있으며 교회 공동체 생활을 통하여 나눔을 촉진하는 문화와 네트워크를 제공한다.

20) 윤기종·최승희, 「생태체계관점에서 본 청소년자원봉사활동 지속요인」 『한국청소년연구』 제20권 3호(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2009), 5-31쪽.

21) 이종은(2009). 앞의 글.

22) 이희태, 「공공부문 자원봉사센터의 성과 영향요인 분석」 『한국행정논집』 제13권 2호(한국정부학회, 2001), 443-471쪽.; 김성종·엄성호, 「청소년 자원봉사활동 지속성 영향요인 연구」 『공공정책연구』 제11권(동의대학교 지방자치연구소, 2002), 59-95쪽.; 문재우·강유진·하희주, 「초등학생 자원봉사활동 실태 및 참여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경기도 내 초등학교 학생들을 중심으로」 통권 제40호 『한국청소년연구』(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2004), 215-245쪽.; 구혜영, 「공공조직 자원봉사자의 활동효과성 영향 요인 연구」 『한국사회복지행정학』 제8권 3호(한국사회복지행정학회, 2006), 112-137쪽.

23) 김옥·송미영, 「대학생의 자원봉사 참여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 『청소년학연구』 제13권 6호(한국청소년학회, 2006), 330-360쪽.

24) Astin, A. W. *What matters in college?: Four critical years revisited* (Vol. 1) (San Francisco: Jossey-Bass, 1993)., Damico, A. J., Damico, S. B., & Conway, M. M. "The democratic education of women: High school and beyond", *Women & politics*, 19(2), 1998, pp. 1-31.

25) Wuthnow, R., *Saving America?: faith-based services and the future of civil society*. (Princeton University Press, 2004), p. 121.

또한 교회는 옳고 그름에 대한 판단을 내릴 수 있는 삶의 원리, 도움을 주고 받는 관계와 시기, 방법에 대한 구체적 지침을 제공하기 때문에 자원봉사를 구체적으로 행동화하게 한다.²⁶⁾ 가정에서 가족 구성원들이 서로의 자유시간을 사용하는 데 관여하는 것과 유사하게 교회 공동체는 가성 가족(pseudo family)의 역할을 하며 교인들의 여유시간 활용 방식에 개입하고 그 시간을 자원봉사에 할애하도록 영향을 미칠 수 있다.²⁷⁾

그러나 종교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 또는 종교기관에 소속되어 있다는 것이 곧바로 도움이 필요한 타인을 돕는 자원봉사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다. 선행연구에서는 소속종교에 대한 인식 또는 종교기관 소속 자체 보다는 종교에 대한 애착과 몰입을 의미하는 종교성 정도가 자원봉사 참여를 예측한다는 연구가 다수를 이룬다.²⁸⁾ 본 연구에서는 종교기관에서 받은 나눔에 대한 피교육 경험과 함께 기독교 교인의 종교성이 성인기의 자원봉사 참여의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함께 확인해 보고자 한다.

3. 사회적책임성의 매개효과

자원봉사 참여의 동기로서 가치의 중요성이 지속적으로 관심을 받아왔음에도 불구하고 가치와 자원봉사 참여간의 관계에 대한 연구결과가 일관되지 않거나 유의한 영향이 없다는 연구결과가 있었던 것은 선한 가치라고 해도 그것이 모두 자원봉사를 동기화 하지는 않는다는 사실과 관련된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타인을 돕는 것을 도덕적 행위로 인식하기는 하지만, 그 중 소수의 사람들만이 그것을 실행에 옮기게 된다.

가치연구의 권위자로 알려진 슈바르츠는 장기(臟器) 적합성이 있다면 타인에게 자신의 장기를 기증할 책임감을 느끼는지에 대한 서베이 연구를 실시하였다.²⁹⁾ 조사결과, 타인에

26) Wilson, J., & Musick, M. "Who cares? Toward an integrated theory of volunteer work" *American Sociological Review*, 1997, pp. 694-713.

27) Son, J., & Wilson, J. "Generativity and volunteering" *In Sociological Forum* 26(3), 2011, pp. 644-667.

28) Wuthnow R. *Acts of Compassion*. (Princeton: Princeton Univ. Press, 1991); Wuthnow, Robert. "Beyond quiet influence? Possibilities for the Protestant mainline." *The quiet hand of God: Faith-based activism and the public role of mainline Protestantism* (2002), pp. 381-403.; Hodgkinson, V. A., Weitzman, M. S., & Kirsch, A. D. *From belief to commitment: The community service activities and finances of religious congregations in the United States: 1993 Edition*. (Independent Sector, 1993).; Wilson and Janoski(1995) 앞의 글; Musick, Marc A., John Wilson, and William B. Bynum. "Race and formal volunteering: The differential effects of class and religion," *Social Forces* 78.4 (2000): 1539-1570.; Becker, P. E., & Dhingra, P. H. "Religious involvement and volunteering: Implications for civil society", *Sociology of Religion*, 62(3), 2001, pp. 315-335.; 강철희 · 정상원 · 이지혜, 「종교인구의 사회봉사 참여수준에 관한 연구: 종교적 요인 및 비종교적 요인의 영향력에 관한 분석」 『사회복지정책』제36권 1호(한국사회복지정책학회, 2009), 5-34쪽.

29) Schwartz, S. H., "Normative explanations of helping behavior: A critique, proposal, and empirical test" *Journal of Experimental Social Psychology*, 9(4), 1973, pp. 349-364.

게 장기를 기증할 책임성을 느끼는 정도와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자원봉사에 대한 가치관에 높은 상관관계가 있음을 검증하였다. 또한 슈바르츠는 인간의 개방성, 보편성, 자기 초월성 등의 다양한 가치가 친사회적 가치와 관계를 갖지만 도움행동을 하는 최종단계에서 영향을 미치는 것은 바로 그 도움행동을 하는 데 대한 책임성을 느끼는가와 관련된다 고 하였다. 즉 개인이 타인의 복지에 헌신하기로 결정을 내림에 있어서 타인의 복지가 자신의 책임이라고 인식할수록 그 행동을 하기로 결정을 내리게 될 가능성은 높아진다는 것이다. 이 때문에 사회적책임성이 자원봉사 참여를 결정하는 변수로서 여러 차례 검증되어왔다.³⁰⁾ 야노스키와 그의 동료들의 연구에서도 사회적책임을 배운 청소년들은 사회적책임성을 내재화하는 그 당시 뿐 아니라 이후 성인기에도 봉사활동 참여 가능성이 높아진다고 보고하였다.³¹⁾ 이형탁과 그의 동료들은 대학생을 대상으로 조사한 연구에서 종교가 있는 학생들은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지역사회 및 사회문제에 관심을 갖고 참여하고자 하는 사회적책임성의 동기가 특히 높게 나타났으며 종교인의 자원봉사를 독려하기 위해서는 사회적책임성을 제고시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였다.³²⁾ 이러한 연구결과는 종교를 통하여 갖게 된 이타적 가치가 높다고 하더라도 사회 문제에 대한 자신의 책임성을 지각하는 정도가 자원봉사활동 참여를 매개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본 연구에서는 사회적책임성이 성장기에 받은 나눔교육과 개인의 종교성을 매개하여 자원봉사 참여에 대한 의도에 영향을 미치는지 검증해보고자 한다.

Ⅲ. 연구방법

1. 연구대상

본 연구의 연구대상은 서울·경기 지역에 위치한 개신교 교회에 출석하는 교인들로서 각 교회의 목회자에게 연구의 목적을 설명하고 설문조사를 의뢰하였다. 설문기간은 2009년 4월 13일부터 5월 4일까지였으며 이후 4주 동안 수거하였다. 조사대상 선정 시에 성인교인 중 연령별, 성별, 활동분야별로 다양성이 반영될 수 있도록 설문대상 선정을 위한

30) Verba, S., Schlozman, K. L., Brady, H. E., & Brady, H. E. *Voice and equality: Civic voluntarism in American politics* (Vol. 4). (Cambridge, MA: Harvard University Press, 1995).; Wuthnow, R. *Learning to care: Elementary kindness in an age of indifference*.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1995).; Hodgkinson, V. and Weitzman, M. *Giving and Volunteering in the United States*. (Washington, D.C.: Independent Sector, 1996).

31) Janoski et al., (1998), 앞의 글.

32) 이형탁·김문섭·이호택, 「종교성이 자원봉사 참여 동기 형성에 미치는 영향」 『로고스경영연구』제11권 2호(한국로고스경영학회, 2013), 121-140쪽.

지침을 제공하였다. 감리교, 기독교장로교, 구세군, 성결교, 순복음, 침례교 교단에 소속된 38개 교회에서 1,490명의 자료를 확보하였으며 이중 본 연구의 주요 변수에 응답한 1,059명의 자료를 분석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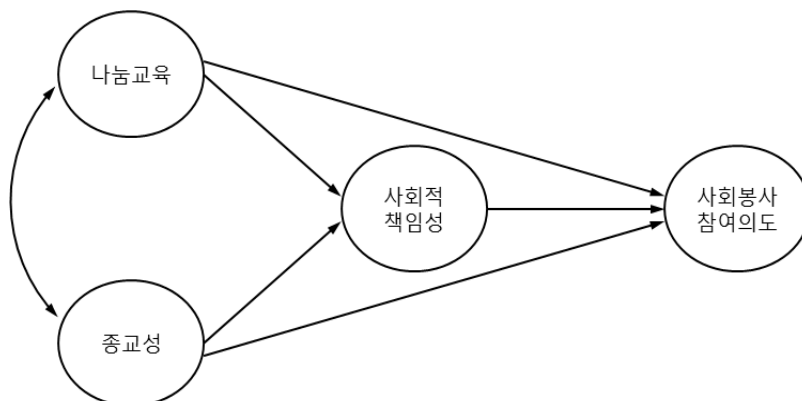
연구대상자들의 사회인구학적 특성의 경우, 성별로는 남성이 36.5%(387명), 여성이 63.5%(672명)이었으며, 평균연령은 38.4세(sd=13.118)였으며 평균 신앙경력은 24.0년(sd=13.801)으로 나타났다.

2. 연구모형과 연구가설

본 연구는 자원봉사 참여 행동을 예측하는 데에 초점을 두고, 향후 자원봉사 참여의도를 설명하는 연구모형을 설정하였다. 연구모형 검증에 위하여 본 연구는 기독교인의 성장기 나눔교육을 받은 경험과 종교성이 사회적책임성을 매개하여 자원봉사 참여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을 분석하고자 한다. 보다 구체적으로는 기독교를 종교로 갖는 시민의 자원봉사 참여의도는 종교성과 봉사교육의 영향을 받고 있으며 사회적책임성이 종교성과 봉사교육 및 자원봉사 참여의도의 관계를 매개할 수 있으므로 이들간의 영향관계를 확인하고자 한다. 연구모형에 따른 연구가설은 다음과 같다.

- 가설1. 성장기 나눔교육의 경험은 사회적책임성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 가설2. 성장기 나눔교육의 경험은 자원봉사 참여의도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 가설3. 종교성은 사회적책임성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 가설4. 종교성은 자원봉사 참여의도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 가설5. 사회적책임성은 자원봉사 참여의도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연구모형은 <그림 1>과 같다.



<그림 1> 연구모형

3. 분석방법

본 연구는 구조방정식을 활용하였다. 구조방정식은 본 연구와 같이 여러 단계의 변수들의 관계 구조를 동시에 분석하고, 모형의 전반적 적합도와 변수들 간의 직접 및 간접 효과를 알고자 할 때 유용한 분석이다.³³⁾ 연구모형에 포함될 주요변수의 이상치, 결측치 그리고 자료의 정규성 검토 및 연구대상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을 파악하기 위해서 기술통계 및 빈도분석을 실시하였으며 변수의 신뢰도, 상관관계를 확인하고 잠재변수에 대한 측정변수의 설명력 파악을 위하여 확인적 요인분석을 시행하였다. Bias-corrected bootstrapping 방법을 통하여 매개변수를 통한 간접효과와 통계적 유의성을 검증하였으며 마지막으로 구조방정식을 통하여 모형의 적합성 및 주요 변수간 관계와 매개효과 검증을 실시하였다.

4. 주요변수의 측정

먼저 종속변수인 자원봉사 참여의도는 응답자가 응답하고 있는 시점으로부터 이후 1년 이내에 봉사활동에 참여할 의도 정도를 묻는 것으로서 5점 척도로 측정하였다. 또한 같은 기간 이내에 봉사활동에 참여한다면 몇 회 정도 참여할 의향인지를 물어 참여의도의 강도를 함께 측정하였다. 참여의도 횟수는 편포된 분포를 보여 자연로그를 취하였다. 자원봉사 참여의도 수준과 자연로그를 취한 참여의도 횟수의 2개 문항의 신뢰도 계수는 .51이었다. 신뢰도가 낮은 것은 구조화된 설문지가 아니기 때문이나 하나의 척도로 사용될 수 있는 수준임을 확인하였다.³⁴⁾

독립변수로는 응답자의 종교성과 나눔교육의 영향을 살펴보았다. 종교성은 개인의 신앙 실천 측면과 관련된 종교성 변수로서 기도, 성경읽기, 그리고 교회출석 빈도를 조사하였다. 3개 문항은 각각 5점 척도로 측정되었으며 종교성의 신뢰도는 .71이었다.

나눔교육 경험은 응답자가 받은 과거의 나눔교육 경험으로서 성장기에 기부 및 자원봉사와 관련한 교육을 종교기관(교회), 학교, 그리고 부모로부터 받은 교육경험 여부로 조사하였다. 선행연구에 의하여 부모의 경우 나눔에 대한 인지적 교육을 실시한 경우와 부모의 나눔행동을 관찰한 경험 모두 나눔교육으로서 효과가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으므로 부모의 나눔교육은 나눔교육 경험과 부모의 나눔행동관찰 두 문항으로 측정하였다. 나눔교육의 신뢰도는 .70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 매개변수로 사용된 변수는 사회적책임성인데 사회적책임성에 대해서는 시

33) 배병렬, 『Amos 7 에 의한 구조방정식 모델링』 (서울: 도서출판 청람, 2007).

34) Gliem, A.J. and Gliem R.R, 『Calculating, interpreting, and reporting Cronbach's Alpha reliability coefficient for likert-type scales, Midwest Research to Practice Conference in Adult, Continuing, and Community Education』 (The Ohio State University, Columbus, October 8-10, 2003), pp. 82-88.

민으로서 인식하는 사회적책임성과 기독교인으로서 인식하는 사회적책임성에 대한 2개 문항을 5점 척도로 조사하였다. 신뢰도는 .72로 나타났다. 연구모형에 포함된 변수들을 정리하면 <표 1>과 같다.

<표 1> 변수의 정의 및 측정

구분	잠재변수	측정변수	변수측정
종속변수	자원봉사 의도	자원봉사참여의도 수준	5점척도 (5=반드시 참여 1=전혀 불참)
		자원봉사참여의도 횟수	향후 1년간 참여의도 횟수 (자연로그)
독립변수	나눔교육 경험	교회에서 받은 나눔교육 경험 학교에서 받은 나눔교육 경험 부모에게서 받은 나눔교육 경험 부모가 나눔실천하는 것을 관찰한 경험	1=있음 0=없음
	종교성	기도빈도 성경읽기 빈도	5점척도 (5=1일 1회 이상, 1=전혀하지않음)
		교회출석 빈도	5=주3회 이상 1=전혀하지않음
매개변수	사회적책임성	기독교인의 사회적책임성 시민의 사회적책임성	5점척도 (5=매우동의 1=전혀비동의)

IV. 연구결과

1. 주요변수의 기술통계

<표 2>는 본 분석에서 활용한 표본의 기술분석 결과이다. 응답자의 자원봉사 참여의도 수준의 평균값은 5점 척도에서 3.94로 나타나 참여의지가 보통 수준 이상이었다. 자원봉사 참여강도를 의미하는 연간 참여의도 횟수는 평균 8.87회였다. 참여의도 횟수에 대한 응답의 왜도와 첨도가 10 이상으로 나타나 분석 단계에서 자연로그를 취하였다.

성장기 나눔교육 경험의 경우 교회교육, 학교교육, 부모교육, 부모모델링을 경험한 경우가 각각 67%, 71%, 61%, 63%이었으며 나눔교육을 가장 많이 접한 것은 학교교육이었고, 그 다음이 교회, 부모 순으로 나타났다.

응답자의 종교성은 성경읽기와 기도, 교회출석 모두 평균 4.19, 4.54, 4.38로 나타나 평

균적으로 신앙실천을 주 1회 이상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응답자의 대부분은 주 단위 신앙실천을 정례화하고 있는 교인들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사회적책임성은 시민으로서 지각하는 사회적책임 정도와 기독교 교인으로서 지각하는 사회적책임성 정도를 각각 측정하였는데 시민으로서의 사회적책임성 평균은 3.97이었고, 교인으로서의 사회적책임성 지각수준 평균은 4.31로 나타났다. 기독교 교인으로서의 사회적책임성이 시민으로서의 사회적책임성 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2〉 표본의 일반적 특성

(N=1,059)

잠재변수	측정변수	평균	표준편차	왜도	첨도
자원봉사 참여의도	참여의도수준	3.94	0.84	-0.50	0.00
	참여의도횟수	1.80	0.85	0.95	1.32
	(비자연로그)	(8.87)	(20.26)	(11.60)	(184.72)
나눔교육	부모교육	0.61	0.49	-0.46	-1.79
	부모모텔	0.63	0.48	-0.55	-1.70
	교회교육	0.67	0.47	-0.73	-1.48
	학교교육	0.71	0.45	-0.92	-1.16
종교성	성경읽기	4.19	0.93	-1.27	1.32
	기도	4.54	0.78	-2.17	5.31
	교회출석	4.38	0.57	-0.74	2.90
사회적책임성	시민의 사회적책임성	3.97	0.76	-0.52	0.27
	기독교인의 사회적책임성	4.31	0.70	-0.80	0.52

2. 측정변인 간 상관관계

변인들 간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 봉사참여의도 횟수와 나눔교육의 상관관계를 제외한 모든 변수들의 상관관계수 값은 유의미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주요 변수간 상관관계는 0.4 이하로 변수간 다중공선성의 위험은 낮은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표 3〉 주요변수 간 상관관계

(N=1,059)

	1	2	3	4	5
1. 자원봉사 참여의도 수준	1				
2. 자원봉사참여의도 횟수	0.166**	1			
3. 나눔교육	0.093**	0.033	1		
4. 종교성	0.127**	0.063*	0.111**	1	
5. 사회적책임성	0.365**	0.082**	0.085**	0.243**	1

3. 측정모형 분석 결과

본 연구의 측정모형은 〈표 4〉와 같이 RMSEA의 값이 .052로서 .05보다 다소 높으나 CFI와 TLI가 모두 .90보다 큰 것으로 나타나 수용할 만한 수준의 적합도를 보였다. 또한 음오차 분산과 표준화된 추정치가 1을 넘는 요인적재량이 없었으며, 모든 관측변수는 잠재변수에 대해 $p < .001$ 의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다.

〈표 4〉 측정모형 분석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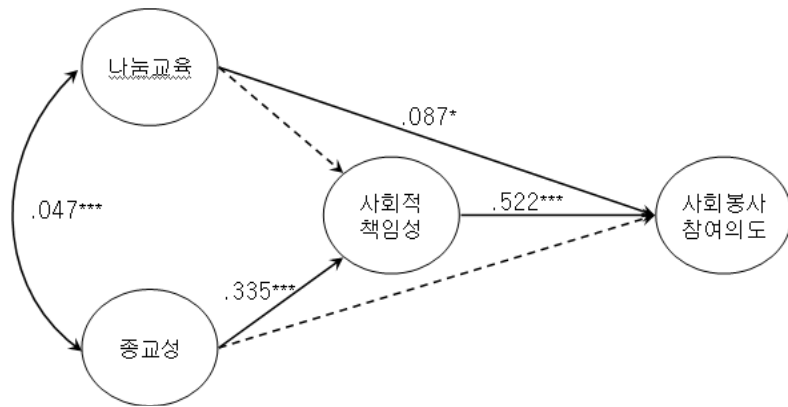
잠재변수	측정변수	Estimate		S.E.	C.R.
		B	β		
자원봉사 참여의도	봉사참여 의도 수준	1.000	.804		
	봉사참여 의도 횟수	.530	.424	.079	6.698***
나눔교육 경험	부모 교육	1.000	.807		
	부모 모델링	.871	.710	.055	15.808***
	학교교육	.480	.415	.044	10.868***
	교회교육	.581	.486	.045	12.975***
종교성	성경읽기	1.000	.822		
	기도	.731	.721	.048	15.376***
	교회출석	.375	.503	.028	13.263***
사회적책임성	시민의 사회적책임성	1.000	.734		
	기독교인의 사회적책임성	.962	.763	.074	13.032***

$\chi^2 = 163.457$, $df=38$, CFI=.952, IFI=.952, TLI=.931, RMSEA=.052

*** $p < .001$

4. 구조모형 분석 결과

구조모형 분석을 통해 독립변수와 매개변수 그리고 종속변수간의 영향관계에 대해 설정한 가설을 검정할 수 있다. 본 구조모형의 적합도는 $\chi^2=136.365(df=38, p<.001)$, RMSEA=.049, CFI=.958, IFI=.958, TLI=.939로 나타났다. <그림 2>로 제시한 연구 결과는 모형 중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경로는 실선으로, 유의미하지 않은 경로는 점선으로 보고하였다.



〈그림 2〉 구조모형 분석결과

- 1) 제시된 수치는 표준화된 수치임.
- 2) 실선은 유의한 관계를, 점선은 유의미한 관계가 없음을 뜻함.
- 3) * $p<.05$, *** $p<.001$

〈표 5〉는 구조모형의 경로별 경로계수를 나타낸다. 주요변수간의 인과관계를 보면, 첫째, 나눔교육은 사회적책임성에 유의한 영향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나눔교육은 자원봉사참여의도에는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beta=-0.026, p<0.001$) 나눔교육을 받은 사람일수록 자원봉사 참여의도가 높아지는 효과가 유의하였다. 종교성은 사회적책임성에 유의한 관계가 있었으며($\beta=0.573, p<0.001$) 종교성이 높을수록 사회적책임성도 높아진다는 것이 밝혀졌다. 그러나 종교성이 자원봉사 참여의도에 미치는 영향은 유의한 관계가 없었다. 사회적책임성이 자원봉사참여의도에 미치는 영향은 정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으며($\beta=0.415, p<0.001$) 사회적책임성이 높을수록 자원봉사참여의도도 높아지는 것을 확인하였다.

따라서 연구가설로 설정한 “가설1. 성장기 나눔교육의 경험은 사회적책임성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는 기각되었으며 “가설2. 성장기 나눔교육의 경험은 자원봉사 참여의도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는 지지되었다. “가설3. 종교성은 사회적책임성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는 지지되었으나 “가설4. 종교성은 자원봉사 참여의도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는 기각되었다.

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는 지지되지 않았다. “가설5. 사회적책임성은 자원봉사 참여의도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는 지지되었다.

〈표 5〉 구조모형의 경로분석

경로			Estimate		S.E.	C.R.
			B	β		
나눔교육	→	사회적책임성	.091	-.322	.058	.113
나눔교육	→	자원봉사참여의도	.150	.026	.070	2.131*
종교성	→	사회적책임성	.244	.573	.033	7.649***
종교성	→	자원봉사참여의도	.006	.039	.141	.888
사회적책임성	→	자원봉사참여의도	.635	.415	.063	10.120***

* p < .05, *** p < .001

5. 효과의 분해

다음에서는 성장기 나눔교육 경험과 종교성이 자원봉사참여의도에 미치는 총효과를 간접효과와 직접효과로 분해하고 영향력의 상대적 크기를 비교하였다.

〈표 6〉에 의하면, 나눔교육이 자원봉사참여의도에 미치는 영향은 총효과가 .121, 직접효과 .087, 간접효과 .034으로 나타났으나 간접효과는 유의하지 않았다. 종교성이 자원봉사참여의도에 미치는 영향은 총효과가 .181, 직접효과가 .006, 간접효과가 .175였는데 간접효과는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6〉 관련 변인 간 총효과 및 직·간접 효과(표준화계수)

	자원봉사참여의도		
	총효과	직접효과	간접효과(신뢰구간)
나눔교육	.121	.087	.034(-.013 ~ .076)
종교성	.181	.006	.175(.128 ~ .248)**

* < .01

V. 결론

본 연구는 기독교인을 대상으로 성장기에 받은 나눔교육 및 종교성이 성인기 자원봉사 참여의도와 갖는 관계를 확인하면서 이 때 사회적책임성이 매개효과를 갖는지 검증하고자

하였다. 연구결과에 의하면, 성장기 나눔교육 경험은 성인기 자원봉사 참여의도에 직접적인 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사회적책임성에는 유의한 영향이 없었다. 반면에 종교성은 자원봉사 참여의도에 직접적으로 미치는 영향은 유의하지 않았으나 사회적책임성을 매개하여 영향을 미치는 간접효과는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총효과 차원에서 볼 때 성장기 봉사교육 경험 보다는 종교성이 갖는 영향력이 보다 강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성장기 봉사교육 경험이 사회적책임성을 매개하지 않고 직접적으로 성인기 자원봉사 참여의도에 영향을 미쳤다는 것은 한번이라고 나눔에 대한 경험을 갖게 되면 이후의 나눔이 보다 용이해진다는 선행연구와 동일한 결과를 보이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성장기의 봉사교육이 봉사활동 전의 사전교육과 함께 봉사활동을 포함하고 있는 것으로 이해할 때 사회실천이론을 지지한다고 볼 수도 있으나 응답자들이 경험한 나눔교육이 봉사활동 경험까지 포함하고 있는지 불분명하므로 사회실천이론을 지지하는지 확인하기 위해서는 나눔교육 경험의 내용이 인지적인 내용에 국한되었는지, 봉사활동을 포함하고 있었는지에 대하여 보다 구체적으로 조사할 수 있는 척도가 포함될 필요가 있다. 오히려 부모의 봉사교육과 봉사모델링 경험 및 성장기 주요 타자인 학교 교사, 종교기관의 교사로부터 받은 교육이 성인기의 자원봉사 참여의도를 설명한다는 것은 사회학습이론을 지지하는 것으로 설명하는 것이 보다 타당할 수 있다.

종교성의 경우, 직접적으로 자원봉사 참여의도를 설명하지는 않고 사회적책임성을 매개할 때에만 자원봉사 참여의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은 높은 종교성 자체가 자원봉사에 영향을 미친다는 선행연구의 내용과는 불일치하며,³⁵⁾ 여러 가치의 서열관계 속에서 사회적책임성이 친사회적 행동을 직접적으로 예측하게 해 준다는 슈바르츠의 견해 및 관련 선행연구들과 맥을 같이 한다.

기독교와 같이 타인을 섬기고 돕는 데 대한 교리가 강한 종교는 그 종교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자원봉사와 같은 친사회적 행동을 하도록 이끌기는 하지만 종교성이 강한 사람이라 하더라도 타인의 유익을 위한다는 의미를 선교적 차원에서 복음 전파를 위한 자기 희생으로 이해할 수도 있고, 자신이 속한 종교조직의 교인들에 대한 섬김이나 종교적 봉사로 이해할 수도 있다. 이 때문에 종교적 헌신이 타인의 복지 및 지역사회의 문제 해결 활동에 참여하는 것으로 연계되기 위해서는 스스로를 사회적 책임을 갖는 종교인이자 시민으로서 인식하는 사회적책임성의 형성이 필수적임을 확인할 수 있다.

본 연구가 갖는 제한점으로는 반영한 척도가 비교적 간단하여 제한된 정보를 제공한다

35) Wuthnow, 1991, 2002, 2004, 앞의 글; Hodgkinson and Weitzman(1993) 앞의 글; Wilson and Janoski(1995) 앞의 글; Musick, Wilson, and Bynum(2000) 앞의 글; Becker, P. E., & Dhingra, P. H. "Religious involvement and volunteering: Implications for civil society", *Sociology of Religion*, 62(3), 2001, pp. 315-335.

는 점을 들 수 있다. 전술한 바와 같이 자원봉사교육의 내용에 대한 구체적인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척도의 정교화에 따른 후속 연구가 요구된다. 또한 기독교인이라는 특정 대상에 국한된 연구는 한국 사회의 여러 종교의 특성을 반영하지 못하는 제한점을 가질 수 있으므로 다양한 대상을 통한 종교간 봉사참여기제 분석연구가 후속된다면 본 분야의 지식의 확대에 기여할 것으로 본다.

이러한 제한점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다양한 연구의 의의를 갖는다.

첫째, 국내에서 성장기의 나눔교육이 성인기 봉사활동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실증 연구가 매우 드물다. 본 연구는 자원봉사 참여 또는 자원봉사 참여의도에 관한 연구에서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단순 확인하는 데에서 나아가 성장기의 나눔교육과 종교성의 영향 요인이 사회적책임성을 매개하는지에 대한 경로를 검증하고자 한 점에서 기존 연구와 차별성을 갖는다.

둘째, 본 연구는 종교를 가진 시민의 자원봉사 참여와 관련하여 규범주의 이론, 사회실천 이론, 사회학습 이론의 논의를 실증연구를 통하여 검증했다는 데에 그 의의가 있다. 종교성이 사회적책임성을 매개하여 자원봉사참여의도에 영향을 미친다는 결과는 인간의 가치가 행동을 견인한다는 규범주의 이론을 지지하고, 성장기 봉사교육이 사회적책임성 매개 없이 자원봉사 참여의도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것은 사회실천 이론 및 사회학습 이론을 지지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셋째, 우리사회의 나눔 문화가 한 단계 더 성숙되고 발전하기 위해서는 젊은 세대에게 나눔의 가치를 심어주고 이들이 성인기에도 나눔을 지속적으로 실천하며 후속세대에 그 문화를 전할 수 있게 하는 노력이 요구되며, 봉사교육이 이러한 목적수행에 효과적인 도구로서 활용될 수 있도록 가치교육에 있어 충실을 기할 필요성이 있음을 시사한다. 본 연구는 성장기 나눔교육이 이후의 성인기 자원봉사 의도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밝힘으로써 유년기 및 청소년기에 받는 봉사교육의 실효성을 증명하고 있다. 그러나 한편 본 연구 결과는 우리사회의 봉사교육이 봉사에 대한 사회적책임성의 가치 형성에는 효과적이지 못함을 보고하고 있다.

넷째, 본 연구의 결과는 종교조직의 차원에서 교인들의 자원봉사 참여 촉진방안 마련에도 지식기반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한다. 기독교를 포함하여 많은 종교들이 자비와 관대함, 섬김의 가르침을 전하고 있으나 종교적 가치가 사회적책임성의 가치로 연계되지 않으면 자원봉사와 같은 사회적 참여로 이어지지 않음을 알 수 있다. 오늘날 기독교를 위시한 주요 종교 조직들은 섬김에 대한 종교의 교리적 요구 뿐 아니라 사회의 구성체로서 사회적책임성을 요구받고 있으며 교인들의 양육과 성장, 지역사회의 신뢰 제고의 목적에서도 자원봉사 활성화의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다. 본 연구는 교회와 같은 종교조직들은 교인들의 높은 종교성을 사회적 참여로 연결시키는 과정에서 사회적 책임에 대한 인식 제고의 노력이 요구된다는 사실을 제시하고 있다.

참고문헌

- 강철희 · 정상원 · 이지혜, 「종교인구의 사회봉사 참여수준에 관한 연구: 종교적 요인 및 비종교적 요인의 영향력에 관한 분석」, 『사회복지정책』제36권 1호(한국사회복지정책학회, 2009), 5-34쪽.
- 구혜영, 「공공조직 자원봉사자의 활동효과성 영향 요인 연구」, 『한국사회복지행정학』제8권 3호(한국사회복지행정학회, 2006), 112-137쪽.
- 김미숙, 「교회의 사회복지활동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 『한국보건사회연구』제20권 1호(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0), 32-63쪽.
- 김성중 · 엄성호, 「청소년 자원봉사활동 지속성 영향요인 연구」, 『공공정책연구』제11권(동의대학교 지방자치연구소, 2002), 59-95쪽.
- 김옥 · 송미영, 「대학생의 자원봉사 참여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 『청소년학연구』제13권 6호(한국청소년학회, 2006), 330-360쪽.
- 문재우 · 강유진 · 하희주, 「초등학생 자원봉사활동 실태 및 참여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경기도 내 초등학교 학생들을 중심으로」통권 제40호, 『한국청소년연구』(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2004), 215-245쪽.
- 배병렬, 『Amos 7 에 의한 구조방정식 모델링』(서울: 도서출판 청람, 2007).
- 윤기종 · 최승희, 「생태체계관점에서 본 청소년자원봉사활동 지속요인」, 『한국청소년연구』제20권 3호(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2009), 5-31쪽.
- 이종은, 「나눔교육프로그램 개발 및 효과연구 : Concept Mapping을 활용한 모델개발」(연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9).
- 이형탁 · 김문섭 · 이호택, 「종교성이 자원봉사 참여 동기 형성에 미치는 영향」, 『로고스경영연구』제11권 2호(한국로고스경영학회, 2013), 121-140쪽.
- 이희태, 「공공부문 자원봉사센터의 성과 영향요인 분석」, 『한국행정논집』제13권 2호(한국정부학회, 2001), 443-471쪽.
- 장상근, 「자원봉사활동 결정요인에 관한 연구」(서울시립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5).
- 조주희 · 강철희 · 박태근, 「민간나눔자원 총량 추계 연구」, 『2014년 한국사회복지행정학회 춘계 학술대회 및 WORKSHOP』(한국사회복지행정학회, 2014), pp. 83-121.
- Amato, P. R., & Booth, A. *A generation at risk: Growing up in an era of family upheaval* (Harvard University Press: 79 Garden Street, Cambridge, MA 02138-1423, 1997).
- Astin, A. W, *What matters in college?: Four critical years revisited* (Vol. 1) (San Francisco: Jossey-Bass, 1993).
- Becker, P. E., & Dhingra, P. H, “Religious involvement and volunteering: Implications for civil society”, *Sociology of Religion*, 62(3), 2001, pp. 315-335.
- Damico, A. J., Damico, S. B., & Conway, M. M, “The democratic education of women: High school and beyond”, *Women & politics*, 19(2), 1998, pp. 1-31.
- Dekker, P., & Halman, L. (2003), *The values of volunteering: Cross-cultural perspectives*

- (Springer Science & Business Media, 2003).
- De Tocqueville, A. *Democracy in America* (Vol. 10), (Regnery Publishing, 2003).
- Durkheim, E. *Emile Durkheim on morality and society*, (University of Chicago Press, 1973).
- Fitzsimmons, V. R, "Socialization and volunteer work: The role of parents and college volunteering" *Nonprofit and Voluntary Sector Quarterly*, 15(4), 1986, pp. 57-66.
- Flanagan, Constance A., and Lonnie R. Sherrod, "Youth political development: An introduction." *Journal of social issues* 54(3), 1998, pp. 447-456.
- Hodgkinson, V. A., Weitzman, M. S., & Kirsch, A. D, *From belief to commitment: The community service activities and finances of religious congregations in the United States: 1993 Edition*, (Independent Sector, 1993).
- Hodgkinson, V. and Weitzman, M. *Giving and Volunteering in the United States*, (Washington, D.C.: Independent Sector, 1996).
- Fischer, L. R., & Schaffer, K. B, *Older volunteers: A guide to research and practice*, (Sage Publications, Inc., 1993).
- Franz, C. E., & McClelland, D. C, "Lives of women and men active in the social protests of the 1960s: A longitudinal study"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66(1), 1994, pp. 196-205.
- Gliem, A.J. and Gliem R.R. 『Calculating, interpreting, and reporting Cronbach's Alpha reliability coefficient for likert-type scales, Midwest Research to Practice Conference in Adult, Continuing, and Community Education』 (The Ohio State University, Columbus, October 8-10, 2003).
- Janoski, T., Musick, M., & Wilson, J. (1998, September), "Being volunteered? The impact of social participation and pro-social attitudes on volunteering" *In Sociological Forum*, 13(3), 1998, pp. 495-519.
- Janoski, Thomas, and John Wilson, "Pathways to voluntarism: Family socialization and status transmission models." *Social Forces* 74(1), 1995, pp. 271-292.
- Jeong, H. O. "How Do Religions Differ in Their Impact on Individuals' Social Capital? The Case of South Korea", *Nonprofit and Voluntary Sector Quarterly* 39(1), 2010, pp. 142-160.
- Midlarsky, E., & Kahana, E, *Altruism in later life*. (Sage Publications, Inc., 1994).
- Musick, M. A., Wilson, J., & Bynum, W. B., "Race and formal volunteering: The differential effects of class and religion" *Social Forces*, 78(4), 2000, pp. 1539-1570.
- Ouellette, J. A., & Wood, W., "Habit and intention in everyday life: the multiple processes by which past behavior predicts future behavior" *Psychological bulletin*, 124(1), 1998, pp. 54-74.
- Rosenthal, S., Feiring, C., & Lewis, M. "Political volunteering from late adolescence to young adulthood" *Journal of social issues*, 54(3), 1998, pp. 477-493.
- Schwartz, S. H., "Normative explanations of helping behavior: A critique, proposal, and

- empirical test” *Journal of Experimental Social Psychology*, 9(4), 1973, pp. 349-364.
- Segal, L. M., Four essays on the supply of volunteer labor and econometrics (Doctoral dissertation, Northwestern University, 1993).
- Smith, D. *Altruism, volunteers and voluntarism*, In *Voluntarism in the Eighties*, ed. (J Harman, Washington, DC: Univ. Press, 1982).
- Smidt, C. “Religion and civic engagement: A comparative analysis” *The Annals of the American Academy of Political and Social Science*, 565(1), 1999, pp. 176-192.
- Son, J., & Wilson, J. “Generativity and volunteering” *In Sociological Forum* 26(3), 2011, pp. 644-667.
- Sugarman, S., *Piaget’s construction of the child’s reality* (New York: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87).
- Sundeen, R. A., & Raskoff, S. A. “Volunteering among teenagers in the United States” *Nonprofit and Voluntary Sector Quarterly*, 23(4), 1994, pp. 383-403.
- Verba, S., Schlozman, K. L., Brady, H. E., & Brady, H. E. *Voice and equality: Civic voluntarism in American politics* (Vol. 4). (Cambridge, MA: Harvard University Press, 1995).
- Wilson, J., & Janoski, T. “The contribution of religion to volunteer work” *Sociology of religion*, 56(2), 1995, pp. 137-152.
- Wilson, J., & Musick, M. “Who cares? Toward an integrated theory of volunteer work” *American Sociological Review*, 1997, pp. 694-713.
- Wuthnow R. *Acts of Compassion*. (Princeton: Princeton Univ. Press, 1991).
- Wuthnow, R. *Learning to care: Elementary kindness in an age of indifference*.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1995).
- Wuthnow, Robert. “Beyond quiet influence? Possibilities for the Protestant mainline.” *The quiet hand of God: Faith-based activism and the public role of mainline Protestantism* (2002), pp. 381-403.
- Wuthnow, R., *Saving America?: faith-based services and the future of civil society*. (Princeton University Press, 2004).

원고접수일: 2015년 6월 2일 심사일: 2015년 6월 25일 게재확정일: 2015년 7월 10일

연구자소개: 정상원

① 전공: 사회복지학박사 / 소속: 서울사이버대학교 사회복지학부

② 관심영역: 사회복지행정, 종교복지

③ 주요논저: 『기독교와 사회봉사 총론』(공저). 두란노아카데미. 2010.

「종교인구의 자선적 기부 행태에 관한 연구」. 한국비영리연구. 2013.

「사회복지사의 직무적합성과 직무상실가능성이 일탈적과업행동에 미치는 영향 분석」. 한국사회복지행정학회, 2014.

「권위주의적 성격이 미등록 이주노동자에 대한 제도적 사회적거리감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한국사회복지교육. 2014.

④ E-mail: jsangwon7@iscu.ac.kr

Abstract

The Influence of Philanthropic Education before adulthood and Religiosity on Intention to Volunteer: Focused on Mediating Effects of Social Responsibility

Sang-won Jong

Seoul Cyber University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xamine the influence of philanthropic education before adulthood and religiosity on intention to volunteer and mediating effects of social responsibility on this relation. Research data was collected from 1,059 Christians affiliated to Protestant churches in Seoul-Kyunggi province. This study adopted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The result indicated that philanthropic education had direct effect on intention to volunteer, but there were no indirect effect mediated by social responsibility. On the other hand, religiosity had no direct effect on intention to volunteer but it had indirect effect mediated by social responsibility. Though philanthropic education before adulthood and religiosity both had the significant effect on intention to volunteer, the pathways were different. Based on these results, the implication of this study and future research tasks were discussed.

Key words: intention to volunteer, philanthropic education, religiosity, social responsibility